

-(으)ㄴ/는 감이 있다

다소 ~한 감이 있다

완곡한 비판 표현입니다. 감은 ‘느낌, 인상’을 뜻하며, 이 구는 인상을 전하면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바로 그 점 때문에 회의에서 유용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형용사	-(으)ㄴ 감이 있다	이르다 → 이른 감이 있다
하다 형용사	-(으)ㄴ 감이 있다	성급한 감이 있다
자주 함께 쓰는 말	조금, 다소, 약간	다소 이른 감이 있다
있다만이 아님	감이 든다도 씀	이른 감이 듭니다
띄어쓰기	감은 명사	이른 감이 있다
판단의 성격	가벼운 비판	좋은 감이 있다(어색함)

■ 언제 쓰나요

형태는 관형형 체계를 따르지만, 실제로는 거의 항상 형용사에 -(으)ㄴ을 붙여 씁니다: 이른 감, 성급한 감, 부족한 감. 감은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

판단은 가볍고 비판적입니다. 무언가가 조금 어긋나 있거나, 약간 지나치거나 모자라다는 뜻입니다: 결정이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.

조금, 다소, 약간 같은 부사가 거의 항상 함께 쓰여 완곡함을 더합니다.

이 표현의 가치는 사회적인 데 있습니다.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도 상대방에 게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, 업무상 논의에서 표준적으로 씁니다.

■ 예문

- 1 지금 결정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.
- 2 이번 조치는 다소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.
- 3 설명이 약간 부족한 감이 있어요.
- 4 디자인이 조금 요란한 감이 듭니다.
- 5 직접 만들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감이 있다.
- 6 가격이 다소 높은 감이 있지만 품질은 좋습니다.

■ 비교

-(으)ㄴ/는 편이다
편하다는 어떤 것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중립적으로 나타내고, 감이 있다는 그 위치에 대한 가벼운 불만을 나타냅니다.
가격이 높은 편이에요. (비싼 편이다) / 가격이 높은 감이 있어요. (좀 비싸게 느껴진다)

-(으)ㄴ/는 것 같다
것 같다는 어떤 인상이든 완곡하게 말하고, 감이 있다는 특히 비판을 완곡하게 말합니다.
이른 것 같아요. (이른 것 같다) / 이른 감이 있습니다. (이르다는 느낌이 든다)

감이 없지 않다
이중 부정을 쓰면 더욱 부드러워지며, 신중한 업무 문서에서 흔히 씁니다.
성급한 감이 있다. /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.

■ 주의

- ✗ 디자인이 훌륭한 감이 있습니다.
○ 디자인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.
감이 있다는 가벼운 비판을 나타냅니다. 칭찬에는 것 같으나 단순한 서술이 맞습니다.
- ✗ 결정이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.
○ 결정이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.
감은 명사이므로 관형형 뒤에 띄어 씁니다.
- ✗ 이 계획은 완전히 잘못된 감이 있습니다.
○ 이 계획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.
이 표현은 작은 유보를 부드럽게 전합니다. 단호한 거절에 붙이면 얼버무리는 것처럼 들립니다.